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 캘리포니아에 있는 Redding 이라는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규모 및 시설 : 제가 생각했을 때 순천향대학교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평지라서 걸어 다니기 쉽습니다. 또한 기숙사 시설은 깔끔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항설보다 넓었습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은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이었습니다.
	분위기 : 방학이라서 대부분 조용한 분위기였고 더운 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또한 도심이 아니고 항상 보안관이 계셔서 매우 안전하였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내용 : 우선 웹디자인 수업과 ESL 영어 수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웹디자인 수업은 문과인 친구들도 잘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쉬웠지만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라 어렵지 않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한 질문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ESL수업은 영어 수업입니다. 세시간 수업 동안 쉬는 시간을 한 번을 안주셔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교수님의 수업 패턴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방법 : 웹디자인 수업은 교수님이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 자신만의 생각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필드 트립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만의 웹디자인을 만들어 마지막날에

필드트립	발표를 하게 됩니다. ESL수업은 대부분 발표 수업이 많고 그룹을 지어 수업을 합니다. 그룹은 교수님께서 매번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사 : 웹디자인 교수님은 매우 전문적이시고 쉬운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ESL수업 교수님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항상 리액션이 좋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수업이 너무 빠르고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제 : 웹디자인은 과제가 거의 없고 ESL수업은 과제가 많았지만 교수님이 확인을 잘 안하십니다.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트립은 매일마다 오전 수업 후에 오후에 있습니다. Activity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어야 되지만 햇빛이 매우 강해 항상 선크림이 필수입니다.(바디 선크림 포함) 저는 마지막 발표 때 4th of July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4th of July는 미국이 독립기념일로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 옆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커먼스에서 파티를 하고 저녁이 되자 Redding Civic Center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보러갔습니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갈때에는 날씨가 레드보다 훨씬 쌀쌀하고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겹옷을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카약을 타러 위스키타운에 갈 때에는 여벌 옷보단 수건을 꼭 챙기고 모자나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워터파크 갈 때 외에도 수영복을 입을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은 필수입니다. 필드트립 동안에는 추가적인 비용은 학교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들고 다녀도 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는 많이 덥지만 건조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햇빛을 많이 받은 날에는 알로에로 팩을 하거나 몸에 바르고 있으면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저는 미스트도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 동안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얇게 걸칠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레딩안에서와 Shasta College안에서는 안전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3주 동안 이 곳에서는 한 번도 위험을 느낀적이 없습니다. 기숙사 출입도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고, 방문도 열쇠가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시설 : 기숙사는 2인 1실이며 침대가 책상위에 있는 2층 침대입니다. 깨끗하고 넓고 좋았습니다. 분위기 : 프로그램 친구들 끼리 모두 친해서 시끌시끌한 분위기는 때문에 방음이 잘 안되는 점이 약간 불편했습니다. 규칙 : 외박은 안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유의사항 : 기숙사에 왔을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O) 외부식당 (O) 기타 (O) 아침, 점심, 저녁에는 항상 학교식당에서 밥이 나옵니다. 하지만 입맛에 안맞을 때에는 외부식당이나 커먼스에서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차를 타고 대부분 레딩 시내에 나가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외부식당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커먼스에서 직접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리를 해 먹었습니다.
교통	우버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거의 외국인 친구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빌려탈 수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동할 경우에는 학교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비행기	약1,700,000	단체
밥 값	300,000	마트 장보러 간 비용, 외부식당에 서 먹은 밥 값
세크라멘토 놀이공원 입장비	50,000	입장비+자유이용권
기념품+선물	400,000	쇼핑몰
합계	1,700,000+750,000=2,4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장거리 비행동안 목배개랑 혹시 추울 수 있으니 겹옷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편한 옷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으니 간식거리나 간단하게 한국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알로에 팩이나 피부진정 효과가 있는 물건을 사오는 것이 좋습니다. 로밍 보다는 유심을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버 택시를 사용할 때에 유심을 쓰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겹옷을 두꺼운 것 하나 얇은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가는 것이 좋고 편한신발이 필수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이번 프로그램 동안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같이 기숙사를 쓰면서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참여 함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너무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또한 3주 동안 같이 지낸 친구들이 많이 그립고 나중에 한국에 오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너무 만족하여서 앞으로 국제교류처에서 하는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4th of July



pool party



Water park



Whiskey town



Sacramento



Burney Falls